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of Korean Public Library Space Management

서혜란(Hye-Ran Suh)**

김선애(Sun-Ae Kim)***

강은영(Eun-Young Kang)****

초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간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도서관 신축 및 공간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국 524개 공공도서관에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167개관(31.87%)을 대상으로 공간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간부족, 노년층과 신체적 약자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의 부족,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시설 부족, 접근성이 저하된 도서관의 입지조건 등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public library space management through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nd obtain/indicate preliminary data on public library building program.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were sent to 524 public libraries in Korea, and 167 cases(31.87% of them) answered were analysed. It was revealed that insufficiency of space, services/facilities for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and services/facilities for community center and location requirements for libraries have a lot to be improved.

키워드: 공간구성, 공간운영실태, 공공도서관, 도서관건축, 도서관공간

Space Management, Library Building, Library Space, Public Library, Space Composition

* 본 논문은 2007년도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에서 지원한 연구용역보고서 "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연구"의 내용 중 3장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조사 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임.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rsuh@silla.ac.kr)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sa@ks.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myflora71@pusan.ac.kr)

논문접수일자 : 2008년 5월 23일 논문심사일자 : 2008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자 : 2008년 6월 8일

1. 서론

도서관계의 대표적 운동가로 알려진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교수 시바 바이다나탄(Siva Vaidyanathan, 2005)은 “도서관은 장소이자 기능이다.”라는 짤막한 말로 도서관의 본질을 요약하였다. 도서관 건물은 도서관의 구성요소, 즉 장서, 사람(사서와 이용자), 시설을 담는 틀이자 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편, 도서관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능들의 범위와 수준은 상당 부분 장소 즉 건물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이라는 도서관의 전통적 역할에 덧붙여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사회계층에게 차별 없이 그들의 정보 접근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문화 및 예술관련 정보와 행사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확대 및 변화는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및 공간구성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문화관광부가 2002년에 발표한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3-2011)』에 따르면 2011년까지 750개관의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기적의 도서관’을 비롯한 어린이도서관과 분관형 작은 도서관 등의 가세로 신축도서관 건립수요는 매년 100여 개관이 넘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2006년에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의 지방분권화 취지에 따라 대규모 지역대표도서관 건립도 예상된다. 이처럼 대규모의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도서관 유형과 서비스 규모 등을 고려한 도서관의 공간운영에 대한 모델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도서관의 건립과 리모델링 사업계획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특성과 서비스 규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한 권장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공간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도서관 신축 및 공간배치 등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도서관의 이용자 규모, 장서규모, 공간규모에 관한 조사, 도서관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 명칭 운영 등에 관한 조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접근권 설치 유무, 노후·낙후 시설에 대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이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

정보화와 지식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공공도서관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인간적 삶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정보를 공적인 관점에서 보장해 주는 퍼블릭 액세스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도서관운동회, 2000). 다시 말해,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그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쇄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제공봉사 외에 각종 디지털형태의 자료를 비롯한 비인쇄자료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각종 강좌, 강연회, 좌담회, 연구회, 감상회(음악, 영화 등), 전시회, 독서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도 최대한 구비해야 한다.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끊임 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상호 외(1999)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차원 즉,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그리고 교육센터로서의 도서관으로 정리하였다. 그 구체적인 역할은 표 1과 같다.

IFLA는 공공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내부 환경으로 첫째, 도서관 장서를 보관하고 진열하기 위한 공간, 둘째 대중이 도서관 서비스를 적절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락하고 매력적인 공간, 셋째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편안한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공간과 변경가능성을 들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IFLA가 제시하는 권장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도서관 건물의 구성요소」를 표 2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협회는 공공도서관의 건물 공간을 크게 지역주민들이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주민이용부분과 이를 지원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지원봉사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공간들은 지역적 특성, 이용자계층, 이용자 요구 등에 근거하여 지역상황과 특성에 맞는 형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각각의 시설 모두가 독립된 개별실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규모와 성격, 이용자수 등에 근거하여 독립된 개별실 또는 코너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최근 정보환경의 변화,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 인터넷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패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정보검색환경의 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검색공간,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증가

(표 1) 공공도서관의 역할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문화센터로서의 도서관	교육센터로서의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도서, 비도서 자료의 제공 ■ 디지털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공 ■ Network System을 이용, 지역도서관 소장 및 이용한계를 극복, 다른 도서관으로의 접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예술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문화향유활동을 보조 ■ 주민의 문화행사 및 화합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 향토자료와 지역문화자료 등을 수집, 보존, 제공하여 지역 특성을 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료열람실의 고유 기능 향상 ■ 일반열람실 등의 개인학습기능은 인정하되 점차 자료중심공간으로 인식을 전환 ■ 각종 사회 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

(표 2) 공공도서관 건물의 구성요소

구분	구성요소	구체적 구성부분		규모결정요소
		단일 및 중앙관	중소분관	
주민 이용 부분	열람부분	개가제 일반열람실 또는 주제별 열람실, 어린이 열람실, 청소년 열람실, 노인 및 약시자 열람실(코너), 점자자료실, 향토자료실(코너), 지방행정자료실(코너), 연구실 또는 개인독서실(캐럴), 경독서실(코너), 기타 특수 자료실(코너)	개가제, 일반열람실, 어린이열람실, 경독서실	개가 도서수 (어린이·일반), 기타 자료수, 열람석수
	참고 및 연속간행물 부분	참고자료실(코너), 연속간행물실(코너), 복사설비코너, 정보안내코너, 독학 정보상담코너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실(코너), 복사설비코너, 정보안내코너	참고 도서수, 비티컬파일 자료수, 연속간행물 제본 책수, 최신호 전자자료종수, 열람석수
	서고부분	폐가제서고, 보존서고, 시청각자료고, 고서 및 고문서 등 보존고		수장 도서수, 기타 수장 자료수
	대출부분	대출실 또는 대출대, 독서상담실(코너)	대출실 또는 대출대, 독서상담코너	대출자수, 직원수
	시청각 봉사부분	음악감상실, 마이크로 자료실(코너), 전시실(코너)	시청각 자료실(코너), 전시실(코너)	자료수, 비치기자재수, 좌석수, 전시공간
	집회부분	중·소 집회실, 시청각실, 씨클사무실, 영사설비, 음향설비	소집회실	집회실수, 수용인원수
	공중을 위한 부분	이야기방, 입구, 현관홀, 목록카드함실(코너),* 전시코너, 소지품 보관소, 휴게실, 식당, 세면대, 화장실, 공중전화, 복도, 계단	전시코너, 목록카드함(코너),* 소지품 보관코너, 화장실, 공중전화	
지원 봉사 부분	사무, 작업 및 직원용 부분	관장실 및 응접실, 서무실, 수서실, 정리실, 열람봉사업무실, 복사제본실, 접자작업실, 회의실, 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실, 작업실, 직원휴게실, 쉼의실, 탕비실, 화장실	사무실, 쉼의실	직원수
	건물 유지관리 (서비스 부분)	보일러실, 작업원실, 수위실, 숙직실, 전기 기계실, 도구실, 연료창고	전기기계실, 작업원실	
	이동문고 부분	이동문고 작업실 겸 서고, 이동사무실, 쉼의실, 샤워실, 화장실, 차고		차량대수, 적재량 수장 도서수
	외부부분	자전거보관소, 주차장, 표시판, 게시판, 북포스트 (야간, 휴일반납구)	자전거보관소, 주차장, 표시판, 게시판, 북포스트(야간, 휴일 반납구)	자동차 대수, 저전거 대수

*검색환경의 변화로 OPAC을 이용한 정보검색공간으로 대체.

로 인해 요구되는 다양한 집회공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를 위한 접근권 제공에 요구되는 새로운 서비스와 시설,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요구되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노력은 주로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도서관 시설 복합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복합화 경향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보환경의 변화가 가져온 도서관의 기능에 따른 도서관의 공간구성은 표 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3)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도서관 유형	공간 구성	개별 공간
전통식 도서관 (개가식 서고열람실 포함)	열람	일반열람실(일반 개가서가군), 비도서 자료열람실, 참고도서열람실, 연속 간행물실, 신문열람공간, 목록열람실
	레퍼런스	컨트롤 카운터(안내, 대출), 레퍼런스 데스크
	학습	캐럴, 그룹 학습실, 자습실
	기타	로비, 라운지, 전시공간, 복사공간
	수장공간	일반서고, 보존서고, 비도서 자료서고(CD, AV 등) 귀중서고, 마이크로 자료서고
전자도서관	열람	Audio & Visual Library(AV정보열람실, AV자료실, 위성방송 청취실, 영상 세미나실 등)
디지털도서관	검색/열람/정보 서비스	정보 검색실(디지털 매체자료보관, 정보서비스, 디지털 정보검색)
업무공간	기술업무	수서실, 제본실, 수선실, 전산실
	행정업무	관장실, 과장실, 응접실, 일반사무처리공간
	부대시설	휴게실, 회의실, 강의실, 직원라운지
기타공간	복도, 계단	복도, 계단, 출입구, 로커, 엘리베이터, 화장실, 기계실, 창고, 작업원실 등

2.2 관련연구

정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요구나 정보이용행태의 변화는 도서관으로 하여금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변화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공간구성과 건축계획 관련 연구는 건축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공공도서관은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역할과 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희(2007)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공간구성 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

고,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복합공간에 대한 공간관계와 구성 체계를 분석, 그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공간계획상의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은경원(2007)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현황 분석을 통해 도서관 복합화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서로 다른 시설들 간의 복합화에 의한 공간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건축 시 공간구성의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문헌정보학계에서 이루어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과 관련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표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1991년 한국도서관협회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운영 모형(안)을 크게 직제, 장서개발, 공중봉사, 시설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시설 부문에서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과 외곽시설 규모, 내곽시설규모와 공간배치의 두

영역의 표준 모형이 제안되었다. 동일선상에서 1998년 한국문헌정보학회는 21세기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과 모형이라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장서, 직원, 문화 활동 등을 중심으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모델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및 소규모의 카테고리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인영(2004)은 공공도서관의 문화·교육 기능에 초점을 맞춰 기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공간구성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경기도 소재 공공도서관 53개관을 대상으로 공간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과 함께 공간구성에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관찰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간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유일한 연구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곽철완 2005),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차미경 2006),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곽철완, 이정미 2005) 등이 있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02)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수는 750개관으로 예상되며, 개정도서관법의 지방분권화 취지에 따라 대규모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또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신축도서관 건립 예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간구

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3.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조사

3.1 연구대상과 설문지 구성

연구진은 실태조사를 위해 2006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된 『한국도서관연감』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사서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설문조사에 응할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메일이 확보된 52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업무인원과 장서규모)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제2부는 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도서관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소재지역의 도시계획상황, 공간구성 및 용도별 면적, 각 공간의 운영현황 및 최근의 공간변화양상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제3부는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계획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온라인조사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조사에 소요된 기간은 2007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로 총 40일이었다. 처음 설문지를 회수했을 때(2007. 11. 7~28) 설문지 회수률이 20.23%에 불과하였다. 연구진은 몇몇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문지의 문제점 분석에 착수하였으며, 회수율 부진의 원인이 설문지 구성의 복잡성과 사서들 입장에서 쉽게 응답할 수 없는 문항 때문임을 알았다.

따라서 연구진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2차 설문지를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설문지는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차 설문지와 동일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내용의 유용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문지 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재구성하였다. 다시 말해 연구팀에게 유용하고 중요한 정보를 참여자 입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필수항목으로 처리한 반면, 공간별 면적 및 층별 공간운영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공간운영 현황 등 분석에 유용하지만 작성에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항목은 선택항목으로 처리하였다.¹⁾

2차 설문조사를 마친 결과 최종 회수율은 31.87%(167개관)로 1차 설문조사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회수율 50% 이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3.2 응답도서관의 일반현황

조사의 첫 단계로 공간운영 실태조사에 참여한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답한 167개 도서관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1990년도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이 76개관, 1990~2000년 사이 설립된 도서관이 72개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 이후에 설립된 도서관은 19개관이었다.

봉사대상인구수는 현재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게 될 잠재적 이용자를 말하며, 이들은 도서관의 공간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167개 도서관의 봉사대상자 규모는 봉사대상자수가 5만명 미만인 도서관이 61개관(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20만명이 39개관(23.4%), 20만~50만명이 26개관(15.6%), 5만~10만명이 24개관(14.4%) 그리고 100만 이상의 봉사대상자를 가진 도서관도 7개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10만 이상의 봉사대상자를 가진 대규모 도서관과 10만 미만의 중소규모 도서관의 참여가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 도서관의 설립년도

구분	응답 도서관수	비율(%)
1990년 이전	76	45.5
1991~5년	39	23.4
1996~2000년	33	19.8
2001~5년	15	9.0
2006년 이후	4	2.4
응답도서관수	167	100.0

1) 2차 설문조사에서 설문문항을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다수의 도서관이 선택문항으로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항목간 회수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 항목마다 응답도서관수를 제시해 줌으로써 그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표 5) 도서관의 봉사 대상자수

구 분	응답 도서관수	비율(%)
5만 미만	61	36.5
5만~10만	24	14.4
10만~20만	39	23.4
20만~50만	26	15.6
50만~100만	10	6.0
100만 이상	7	4.2
응답도서관수	167	100.0

도서관의 업무인원에 관한 항목에서는 근무인원을 행정직, 사서직, 기능직, 기타로 구분하였다. 행정직은 2명 미만이 근무하는 경우가 63.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사서직에서는 5명 미만이 113개 기관으로 67.7%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5~10명이 27개 기관(16.2%)으로 나타났다. 기능직은 5명 미만에 130개 기관(77.8%)이 응답하였고 5~10명 미만에 14개 기관(8.4%)이 응답했다. 사서직과 기능직에 대한 업무인원 결과를 보면, 개별 도서관에서 두 직군 간 업무인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에 의하면, 사서직과 기능직 비율이 1:1이고, 행정직과 기타 직원을 합할 경우 도서관 내에서 사서직은 소수그룹이다. 이 수치만으로

단정적으로 결론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전문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할 사서직이 기타 직군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도서관 내에서 사서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서관의 현재 장서규모는 2~10만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107개관(6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만권 이상을 소장한 도서관은 5개관(2.8%)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서관이 향후 목표장서규모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도서관의 절반이상인 85개 기관(50.9%)이 10만권까지를 향후 목표장서규모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10~20만권을 목표로 하는 도서관이 39개관으로 23.4%, 20~50만권을 목표로 하는 도서관이 33개관

(표 6) 도서관의 업무인원

구 분	행정직(비율, %)	구 분	사서직(비율, %)	기능직(비율, %)	기타(비율, %)
2명 미만	106(63.5)	5명 미만	113(67.7)	130(77.8)	144(86.2)
2명~4명	35(21.0)	5명~10명	27(16.2)	14(8.4)	17(10.2)
4명~6명	14(8.4)	10명~15명	18(10.8)	17(10.2)	5(3.0)
6명~8명	8(4.8)	15명~20명	4(2.4)	3(1.8)	0(0.0)
8명 이상	4(2.4)	20명 이상	5(3.0)	3(1.8)	1(0.6)
응답도서관수	167	응답도서관수	167	167	167

(표 7) 도서관의 현재 장서 규모 및 목표장서 규모

구 분	현재 장서규모	목표 장서규모
	응답 도서관수(비율)	응답 도서관수(비율)
2만권 미만	3(1.8%)	6(3.6%)
2~10만권	107(64.1%)	85(50.9%)
10~20만권	37(22.2%)	39(23.4%)
20~50만권	15(9.0%)	33(19.8%)
50만권~100만권	4(2.4%)	3(1.8%)
100만권 이상	1(0.6%)	1(0.6%)
응답도서관수	167	167

(19.8%)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장서규모는 봉사대상자규모와 더불어 도서관 공간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도서관 건축 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장서공간이며, 장서 공간 산출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목표장서수라고 할 수 있다. 목표장서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장서규모만을 고려하여 필요공간을 산출했을 경우, 도서관은 장서량의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도서관의 건물면적을 산출하는데 있어 개별 도서관의 장서규모와 도서관이 지향하는 목표장서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3.3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

3.3.1 공공도서관의 입지 및 건물 현황

응답도서관의 공간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건물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며 대지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도서관 건물과 도서관의 입지조건은 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공공·교육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서관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그리고 도서관이 위치한 대지의 도시계획상황을 조사하였다.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1,000㎡ 단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 결과 도서관의 대지면적은 1,000 이상~2,000㎡ 미만에 응답한 도서관이 47개관(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0㎡인 도서관도 24개관(14.4%)로 나타났다. 또한 36개관(21.6%)은 대지면적을 7,00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양하게 분포된 대지면적과는 달리 건축면적의 경우는, 1,000 이상~2,000㎡ 미만이 56개관(33.5%), 1,000㎡ 미만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은 50개관(29.9%)으로 나타나, 대부분 도서관이 2,000㎡ 미만의 건물면적을 갖고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어떤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도서관이 소재하는 대지의 도시계획 상황을 조사한 결과,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도서관이 70개 기관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용이성이 공공도서관의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보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표 8) 도서관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구 분	대지면적		건축면적	
	응답도서관수	비율(%)	응답도서관수	비율(%)
1,000㎡ 미만	24	14.4	50	29.9
1,000 이상~2,000㎡ 미만	47	28.1	56	33.5
2,000 이상~3,000㎡ 미만	23	13.8	15	9.0
3,000 이상~4,000㎡ 미만	14	8.4	11	6.6
4,000 이상~5,000㎡ 미만	10	6.0	15	9.0
5,000 이상~7,000㎡ 미만	13	7.8	9	5.4
7,000 이상~9,000㎡ 미만	6	3.6	7	4.2
9,000 이상~10,000㎡ 미만	9	5.4	1	0.6
10,000㎡ 이상	21	12.6	3	1.8
응답도서관수	167	100.0	167	100.0

장소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동선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의 주거지역은 최상의 위치가 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녹지지역(21개 도서관, 17.1%), 관리지역(6개 도서관, 4.9%), 농림지역(6개 도서관, 4.9%), 자연환경보전지역(2개 도서관, 1.6%) 등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이 35개관으로 28.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이용의 편의성이나 인지도보다는 용지확보의 용이성으로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도서관이 입지할 경우 도서관 건축에 있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50~80%선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도서관의 입지선정은 대지상황, 지역여건 및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해 도서관이 설립된다면 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이용률 저하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IFLA/UNESCO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에 대해 '도서관이란 그들이 어떤 특정한 봉사반경을 가지는 것보다 접근하기 편리한 것이 보다 중요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지와 대중교통수단의 주요통로에 위치되어 있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Philip Grill; 장혜란 역 2002). 이러한 위치에 도서관이 있어야 보다 많은 이용자들을 유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서관협회는 IFLA를 비롯한 여러 전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을 첫째, 상가, 지역 시장,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업무활동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지역사회의 중심지대, 둘째,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수단의 주요통로 및 대로의 교차로, 변화가의 교차점 근처, 셋째, 지역주민들이 물품구매나 통근·통학을 위하여 모이거나 움직이는 일상생활 동선의 방향, 넷째, 공용주차장이 가깝거나 부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 등을 최적의 위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9) 도서관이 소재하는 대지의 도시계획상황

구분		응답도서관수	비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14	11.4
		일반주거지역 1종	20	16.3
		일반주거지역 2종	13	10.6
		일반주거지역 3종	3	2.4
		준주거지역	20	16.3
	상업지역		16	13.0
	공업지역		2	1.6
	녹지지역		21	17.1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	4.9
	농림지역		6	4.9
자연환경보전지역		2	1.6	
응답도서관수		123	100.0	

3.3.2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현황

도서관의 층별 공간구성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무 공간, 이용자서비스공간과 수장 공간의 위치와 가장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의 중앙 층에는 주로 어떤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공간운영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용자서비스공간을 지상층에 배치하였으며, 지하 1층에 배치하고 있는 이용자서비스공간은 주로 일반열람실(학습실), 강당, 회의실 등이었다. 이외 지하 1층에 수장 공간을 배치한 도서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 공간은 주로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무공간을 지상의 고층에 배치한 반면 이용자 서비스 공간을 저층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층별 공간구성운영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가장 중앙 층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지상 1층과 2층을 이용

자서비스공간으로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들은 공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할당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공간에 할당된 면적은 전체 도서관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건물 연면적 내 용도별 면적 및 면적비율을 조사하였다. 이 질문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응답도서관수가 공간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참여도도 저조하였다.

취합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서비스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평균적으로 1,0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용공간이 667㎡, 사무공간이 488㎡, 그리고 수장 공간이 가장 적은 면적인 3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간들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이용자서비스공간이 49.8%로 전체 건물면적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수장 공간

(표 10) 도서관의 층별 공간구성

구 분	사무공간 (비율, %)	이용자 서비스공간 (비율, %)	공용공간 (비율, %)	수장공간 (비율, %)	기타공간 (비율, %)	합 계
지하 2층	5(30.0)	0(0.0)	6(42.9)	3(20.0)	0(0.0)	10(100.0)
지하 1층	109(36.5)	100(33.4)	62(20.7)	27(9.0)	1(0.3)	299(100.0)
지상 1층	115(22.3)	346(67.1)	40(7.8)	14(2.7)	1(0.2)	516(100.0)
지상 2층	67(15.0)	343(76.9)	18(4.0)	18(4.0)	0(0.0)	446(100.0)
지상 3층	24(10.2)	187(79.2)	19(8.1)	5(2.1)	1(0.4)	236(100.0)
지상 4층	6(9.1)	53(80.3)	3(4.5)	4(6.1)	1(0.0)	66(100.0)
지상 5층	4(36.4)	1(9.1)	5(45.5)	0(0.0)	1(9.1)	11(100.0)
기타	3(12.0)	11(44.0)	8(32.0)	1(4.0)	2(8.0)	25(100.0)

- * 사무 공간: 사무실, 직원회의실, 직원휴게실, 탈의실, 탕비실, 창고 등
- * 이용자 서비스 공간: 일반열람실, 주제자료실, 전시실, 강당, 세미나실, 연구실, 회의실, 강습실, 장애인실, 노인실, 어린이실, 유아실, 수유실 등
- * 공용 공간: 로비 혹은 안내, 복도, 계단, 화장실, 휴게실 등
- * 수장 공간: 일반서고, 보존서고 등

은 건물면적 대비 9.3%를 차지한다. 호주의 New South Wales의 도서관협회(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에서 제안하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기준에서는 장서공간을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여 건물면적의 50%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열람공간과 사무공간은 각각 15%와 17.5%를 권장하고 있다(서혜란, 이상호, 김선애 2007).

조사결과는 이용자서비스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장서공간과 사

무공간은 이용자서비스공간의 잠식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청소년과 취업준비생들의 공부방 역할도 병행해야 하는 도서관으로서는 장서공간과 사무공간을 줄여서라도 이용자서비스공간을 확보해야만 이용자들의 원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도서관 공간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요소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현상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표 11) 도서관 건물 연면적 내 용도별 면적 및 면적비율

구 분	응답도서관수	평균면적(m ²)	응답도서관수	평균면적비율(%)
사무공간	130	488	110	7.9
이용자서비스공간	129	1,024	109	49.8
수장공간	119	337	98	9.3
공용공간	123	627	105	24.2
기타공간	94	220	77	9.4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도서관별로 건물면적 대비 공간별 면적비율이 어떻게 분포되어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사무공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도서관 건물면적에서 사무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인 도서관이 79개관(71.9%)으로 거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에 해당되었다. 반면 외국 기준들이 제시하는 15%~17.5% 권장기준에 도달하는 도서관은 9개관(8.2%)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이용자서비스공간의 경우 도서관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60% 미만인 도서관이 65개관(59.6%)으로 가장 많

았으며, 심지어는 60%이상인 도서관도 20개관으로 18.4%를 차지한다. 호주의 New South Wales의 도서관협회(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에서 제안하는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간운영기준인 전체건물면적대비 15%와 비교할 때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서 이용자서비스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형적이라 할 수 있다.

수장 공간과 공용공간의 비율의 경우, 도서관 전체 건물면적에서 수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인 도서관이 62개관(66.7%)으로 가장 많은 반면, 일반적 권장기준인 40~50%의 기준에 도달하는 도서관은 6개관(6.5%)에 불과했다. 이용자서비스공간의 비대함에서 기인하

(표 12) 도서관 건물면적 대비 사무 공간 및 이용자 서비스 공간 비율

건물면적 vs 사무공간	응답도서관수(비율)	건물면적 vs 이용자서비스공간	응답도서관수(비율)
5% 미만	29(26.4%)	20% 미만	7(6.4%)
5 이상~10% 미만	50(45.5%)	20 이상~40% 미만	17(15.6%)
10 이상~15% 미만	21(19.1%)	40 이상~60% 미만	65(59.6%)
15 이상~20% 미만	9(8.2%)	60 이상~80%미만	16(14.7%)
20% 이상	1(0.9%)	80이상~100%	4(3.7%)
응답도서관수	110	응답도서관수	109

(표 13) 도서관 건물면적 대비 수장 공간 및 공용 공간 비율

구 분	건물면적 vs 수장공간(비율)	건물면적 vs 공용공간(비율)
	응답도서관수(비율)	응답도서관수(비율)
10% 미만	62(66.7%)	19(18.3%)
10 이상~20% 미만	13(14.0%)	18(17.3%)
20 이상~40% 미만	12(12.9%)	28(26.9%)
40 이상~50% 미만	5(5.4%)	25(24.0%)
50 이상~100%	1(1.1%)	14(13.5%)
응답도서관수	93	104

는 기형적 공간운영이 수장 공간의 부족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계속적으로 장서공간 부족문제를 안고갈 수밖에 없다. 공용공간의 비율은 20~40% 미만인 도서관이 28개관(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공간의 비율은 5~10% 미만이 25개관(39.7%) 그리고 20% 이상이 15개관(23.8%)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설립년도에 따른 공간별 운영현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도서관과 1990년대 이후에 지어진 도서관의 공간운영 현황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의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건물면적 대비 각 공간별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표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설립년도는 1990년 이전, 1991년에서 1995년, 1996년에서 2000년 그리고 2001년 이후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1990년 이전에 건설된 도서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건설된 도서관이 사무공간과 이용자 서비스 공간 비율에서 각각 8.67%와 60.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이용자서비스공간의 비율은 전체 평균을 25%이상 상회하고 있다. 수장 공간은 1996~2000년에 건설된 도서관이 1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과 비교했

을 때 1.5배이다. 한편 2001년 이후에 건설된 도서관의 경우는 수장 공간이 전체 건물면적의 4.50%로 나타나 이용자서비스공간의 비율과 비교할 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공용면적은 1991년에서 1995년 사이에 건설된 도서관이 가장 높은 비율인 29.95%로 나타났다. 설립년도에 따른 개별 공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은 연도에 따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이용자서비스공간과 수장 공간은 설립년도에 따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규모는 공간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봉사대상규모에 따른 공간별 구성 비율은 설립년도와 비교했을 때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와 봉사대상규모가 5만 미만일 경우와 50만 이상일 경우 도서관의 공간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규모를 결정요인으로 설정하여 건물면적 대비 각 공간별 구성 비율을 분석하였다. 봉사대상규모는 5만 미만, 5만 이상에서 10만 미만, 10만 이상에서 20만 미만, 20만 이상에서 50만 미만 그리고 50만 이상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

(표 14) 도서관의 설립년도에 따른 공간별 구성 비율

설립년도	사무공간 (N*=110)	이용자서비스공간 (N*=109)	수장공간 (N*=98)	공용공간 (N*=105)	기타공간 (N*=77)
1990년 이전	8.36(N=58)	49.98(N=58)	9.37(N=52)	22.71(N=55)	12.00(N=40)
1991-1995년	7.14(N=21)	52.62(N=21)	5.77(N=22)	29.95(N=21)	5.13(N=15)
1996-2000년	7.36(N=22)	42.10(N=21)	16.25(N=16)	23.10(N=20)	7.94(N=16)
2001년 이후	8.67(N=9)	60.11(N=9)	4.50(N=8)	21.89(N=9)	6.50(N=6)
전체 평균	7.95	49.81	9.29	24.16	9.39

* (N=응답도서관수)

(표 15) 도서관의 봉사대상규모에 따른 공간별 구성 비율

봉사대상규모	사무공간 (N* =110)	이용자서비스공간 (N* =109)	수장공간 (N* =98)	공용공간 (N* =105)	기타공간 (N* =77)
5만 미만	8.47(N=47)	47.85(N=47)	12.68(N=40)	27.66(N=44)	7.96(N=25)
5만-10만	7.79(N=19)	57.63(N=19)	3.83(N=18)	22.78(N=18)	7.28(N=18)
10만-20만	7.13(N=24)	49.50(N=24)	9.76(N=21)	20.92(N=24)	10.72(N=18)
20만-50만	7.18(N=11)	52.18(N=11)	8.09(N=11)	23.18(N=11)	11.11(N=9)
50만 이상	8.78(N=9)	40.38(N=8)	5.00(N=8)	19.13(N=8)	14.29(N=7)
전체 평균	7.95	49.81	9.29	24.16	9.39

*(N=응답도서관수)

무공간의 경우,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봉사 대상규모가 5만 미만도서관과 50만 이상 도서관이 평균을 능가한 반면 나머지 도서관은 평균에 못 미쳤다. 이용자서비스공간의 경우, 평균을 20%정도 상회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그룹은 봉사 대상 규모로 5만 이상 10만 미만을 가진 도서관이었다. 수장 공간의 경우는 봉사대상규모에 따라 비율의 편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도서관은 5만 미만의 봉사 대상 인구를 가진 도서관그룹인 반면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도서관은 5만 이상에서 10만 미만의 봉사 대상 인구를 가진 그룹으로 3.83%였다. 공용공간의 경우는 27.66%의 비율을 나타낸 5만미만 도서관이 1위를 차지했으며, 19.13%를 기록한 50만 이상 도서관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공간의 경우는 50만 이상도서관이 타 그룹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1.5배 이상을 기록했다. 봉사대상 규모에 따른 개별 공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 서비스 공간, 수장 공간, 기타공간은 봉사대상규모에 따른 편차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사무공간과 공용공간은 봉사대상규모에 따른 편차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공간 내에 어떤 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와 도서관간 공통성과 차별성을 살펴 보기 위해 개별공간의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사무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을 응답도서관수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실의 존재 유무를 조사한 결과, 많은 도서관이 사무공간으로 관장실(69.9%), 총무실(77.2%), 열람봉사실(51.2%), 수서정리실(52.0%), 창고(64.2%)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도서관에는 직원회의실(85.4%), 직원휴게실(93.5%), 제본실(97.6%) 등이 없었다. 또한 전산실이 없는 도서관도 96개관(78.0%)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자서비스공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이 이용자서비스공간에 로비, 일반열람실(공통), 자료열람실, 디지털자료실과 어린이실을 공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반면 응답도서관의 80% 이상의 도서관이 주제별 자료실, 정보자료실, 고서실, 특수자료실, 향토 자료실, 노인실 등을 배치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연속간행물실이 없는 도서관도 74개관(60.2%)으로 과반수를 능가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정기간행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잡지 및 학술저널 등을 독립적인 공간에서 서비스할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101개관(82.1%)인 반면 22개관(17.9%)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자료실은 각종 전자정보원을 한 장소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검색 공간, 새로운 기술과 정보활용교육의 공간, 교육매체의 이용 공간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도서관 기능에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그 역할과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디지털매체의 출현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및 활용률이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정보제공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과 기능은 도서관 공간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선진외국에서는 관중을 불문하고 많은 도서관들이 인포메이션 코먼스(Information Commons), 인포메이션 아케이드(Information Arcade), 인포메이션 센터(Information Center) 혹은 인포메이션 허브(Information Herb) 등의 명칭으로 새로운 정보공유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포메이션 코먼스는 도서관의 인력과 정보자원에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 이용자서비스 모델로, 북미의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의 공간은 디지털정보의 증가와 그에 따른 서비스 변화의 필요성 증가와 이용자들의 도서관 정보 및 공간 활용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

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아니라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와 만족도 증대를 위해 도서관계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이다. 특히, 2000년 이후 도서관 건물 이용률이 저하되고 참고질문의 수와 대출권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의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대학도서관 뿐 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포메이션 코먼스는 본 조사에서 조사한 디지털자료실, 정보교육실, 시청각감상실, 카페의 기능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능 이외에 교육과 문화·휴식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더 많은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별 자료실의 경우, 관련 자료실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은 응답 도서관 중 2곳에 불과하다. 주제별 자료실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중반 이후 중규모 이상의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장서규모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서의 규모나 전문 인력 현황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한 사례를 찾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노인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4개 도서관(92.7%)이 노년층 관

련 서비스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17개 도서관(13.8%)만이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은 신체적 약자들에게 지식·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들의 도서관 이용을 돕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시청각 장애자와 신체부자유자들을 위해 점자도서, 녹음도서, 대면낭독, 대형 활자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나 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며,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도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을 어린이를 위해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도서관의 어린이실과 유아실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이 84개관(68.3%), 유아실을 운영하는 도서관이 33개관(26.8%)로 나타나 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내에서 어린이실이나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에 대한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 사업이나 민간에서의 어린이 도서관 구축 노력과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응 전략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안정성이 높으며 평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공도서관 어린이실과 유아실 서비스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확대되어야 한다.

수장 공간의 운영 현황 조사 결과, 보존서고 공간은 67개 도서관(54.5%)이, 일반서고는 74

개관(60.2%)이 그리고 고문서서고는 121개관(98.4%)이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출판물의 양도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출판물의 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서관은 공간부족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보존서고공간은 오래되어서 이용가치가 없거나, 보존가치는 있으나 이용이 잘 되지 않은 자료들 즉, 불용도서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곳이다. 만약 개별도서관이 보존서고를 잘 활용한다면 공간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서가를 이용가치가 있는 최신자료로 배가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공용공간의 운영 현황을 정리한 결과, 과반수의 도서관이 공용공간으로 복도/계단, 화장실과 휴게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반면 70% 이상의 도서관이 식당과 매점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인 복사실과 사물보관실을 각각 109개관(88.6%), 114개관(92.7%)이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3.4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변화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도서관에서 축소되었거나 확대·개편된 공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최근 3년 동안 축소된 공간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공간인지를 조사한 결과 표 16과 같다. 축소된 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54개관(32.3%)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소된 공간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경우, 48개관(28.7%)이 일반열람실을 쪼갰으며, 26개관(15.6%)이 사

무공간을 지적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이다. 일반열람실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청소년들의 공부방 역할에서 새로운 역할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사무공간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를 직원들의 공간을 줄이는 희생을 통한 소극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도서관의 설립년도, 봉사규모, 장서규모와의 교차분석을 통해 도서관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였으나 전체결과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최근에 확대·개편된 공간을 조사한 결과, 확대·개편된 공간이 없었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43개관(25.7%)으로 나타났다. 확대·개편된 공간이 있는 도서관에 한해 어떤 공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보서비스 공간, 일반 열람 공간, 디지털/멀티미디어정보 공간이 각각 28개관(16.8%), 23개관(13.8%), 21개관(12.6%)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확대·개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보기술 및 매체의 변화로 인한 디지털/멀

티미디어정보 공간 및 정보서비스 공간, 그리고 일반 열람공간, 결국 이용자서비스공간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공간변화의 양상을 종합하면 사무공간의 축소가 두드러지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사무기능의 축소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제한된 도서관 공간 내에서 정보서비스 공간, 디지털/멀티미디어정보공간, 교육/집회 공간 등의 이용자서비스공간이 확대·개편되는 되는 양상으로 인해 사무공간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표 16과 표 17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3년 이내에 축소된 공간과 확대된 공간 모두에 일반열람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도서관의 설립년도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도서관들은 일반열람실 공간을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비중을 적게 둬서 이로 인해 이용자와의 마찰을 겪고 있으며, 지은 지 오래된 노후화된 도서관은 일반열람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디지털/멀티미디어정보 공간과 같은 이용자서비스 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런 모

(표 16) 최근 3년 동안 축소된 공간(복수응답)

공 간	응답 도서관수	비율(%)
일반 열람공간	48	28.7
디지털/멀티미디어정보 공간	2	1.2
정보서비스 공간	9	5.4
교육/집회 공간	6	3.6
문화공간	6	3.6
사무공간	26	15.6
기 타	70	41.9
없 음	54	32.3
합 계	167	100.0

(표 17) 최근 3년 동안 확대·개편된 공간(복수응답)

공 간	응답 도서관수	비율(%)
일반 열람 공간	23	13.8
디지털/멀티미디어정보 공간	21	12.6
정보서비스 공간	28	16.8
교육/집회 공간	17	10.2
문화공간	13	7.8
사무공간	7	4.2
기 타	58	34.7
없 음	43	25.7
합 계	167	100.0

순된 결과의 원인은 이들 도서관들이 공간활용을 위한 공간 재조정을 할 경우, 정책방향이 다른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5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도서관에서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정보제공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수용과 정보교류의 장으

로서,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합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표 18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의 추가 희망 시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시장,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한 희망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5개 도서관(62.9%)에서 문화공간시설이 추가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26개 도서관(15.6%)은 휴게공간에 대한 추가시설의견을 보였다. 도서관 실무진들의 이러한 의견은 단지 서비스 제공자인 사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복합

(표 18) 추가 희망 시설(복수응답)

시 설	응답 도서관수	비율(%)
문화시설(전시장,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	105	62.9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당구장 등)	8	4.8
상업시설(매장, 점포 등)	8	4.8
휴게시설(휴게실 등)	26	15.6
기 타	20	12.0
합 계	167	100.0

적인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이용자의 기대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간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조사하였다.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도서관, 즉 120개(71.9%)의 도서관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3년 이내에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는 도서관은 34개관(20.4%)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도서관의 설립년도와 교차 분석한 결과,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도서관이 다른 시기에 지어진 도서관보다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건축된 지 오래된 만큼, 시설의 낙후로 인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로는, 90개 도서관(53.9%)이 장서 및 시설의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을 꼽았으며, 건물 시설의 낙후로 인한 필요성이라고 답한 도서관이 42개 도서관(25.1%)이었다. 한편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수요발생과 공간의 재배치를 통한 공간 간 단절성 극복은

각각 8.4%와 7.8%로 조사되었다. 도서관의 설립년도를 고려한 교차분석에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전체결과와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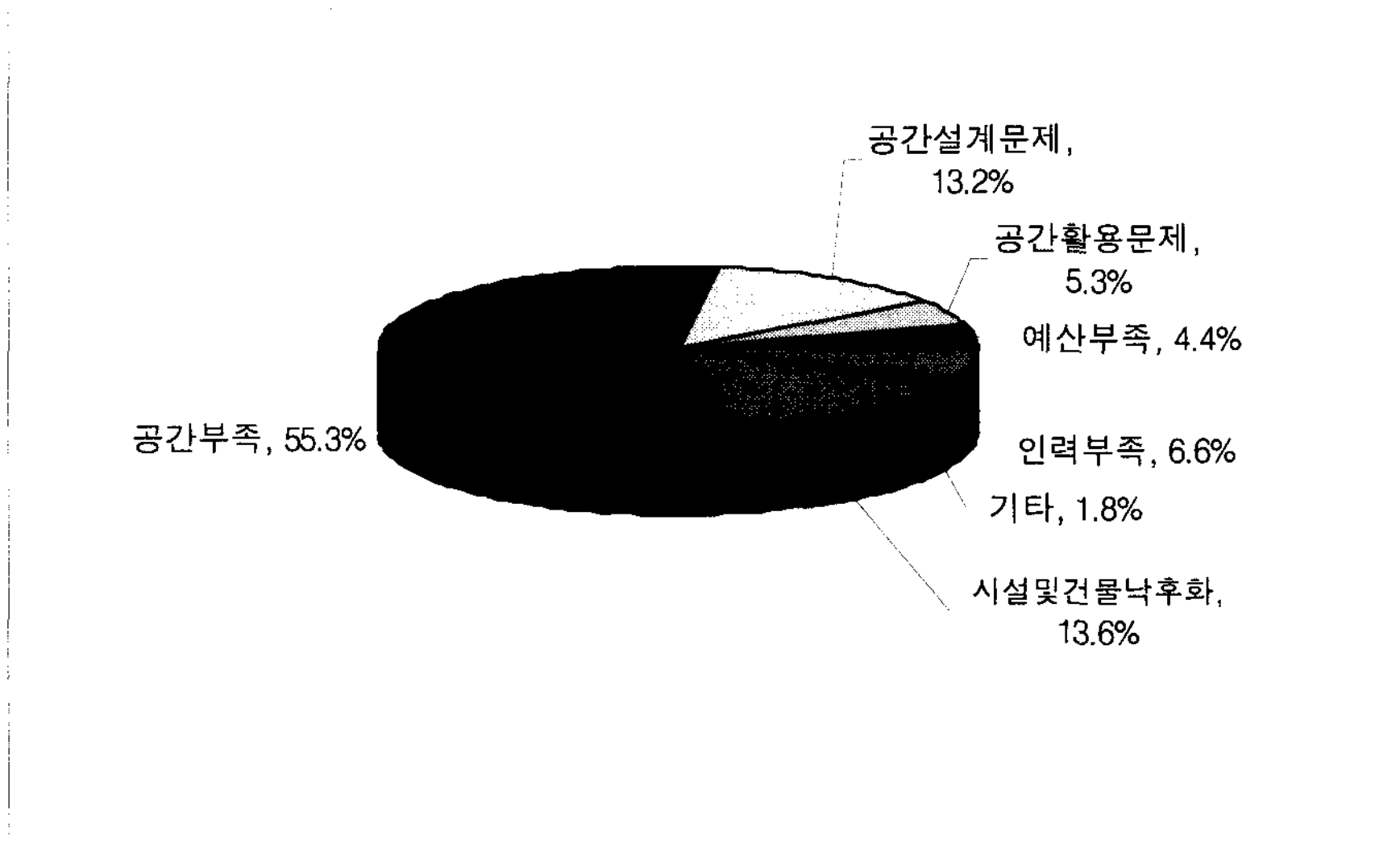
3.6 공간운영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요구사항

도서관의 공간운영과 관련한 실무진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공간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실무진의 의견은 공간부족, 공간설계문제, 공간활용 문제, 시설 및 건물 낙후화, 인력부족, 예산부족 등으로 요약되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간부족을 지적하였으며, 공간설계와 시설 및 건물의 낙후화를 지적한 실무진도 전체의견의 13.2%와 13.6%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공간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실무진이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가 공간운영과 관련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예산부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재고하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실무진들이 말하는 공간운영의

(표 19) 설립년도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에 대한 계획

구 분	도서관의 설립년도					합 계
	1990년 이전	1991~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년 이후	
1년 이내	7	3	3	0	0	13
2-3년 이내	9	3	6	2	1	21
4-5년 이내	2	1	2	1	1	7
10년 이내	2	0	2	2	0	6
없 다	56	32	20	10	2	120
합 계	76	39	33	15	4	167



(그림 1) 도서관 공간운영상의 문제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방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므로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공간부족 문제에서 헤어나갈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팀이 실시한 공공도서관 공간운영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부족이었으며, 그중 장서(수장)공간 부족의 문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제기하고 있었다. 수장 공간의 운영 현황을 보면, 보존서고공간은 67개 도서관(54.5%)이, 일반서고는 74개관(60.2%)이 그리고 고문서서고는 121개관(98.4%)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운영과 관련한 기타 요구사항 조사에서도 실

무진의 55.3%가 공간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도서관은 사무공간의 축소를 단행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추측은 최근 도서관의 공간운영의 변화를 보았을 때, 사무공간의 축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일반열람공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간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중 특히 자료의 수장공간과 사무공간의 부족문제가 가장 심각한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노년층과 신체적 약자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이다. 공공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언어, 사회적 신분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균등한 접근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노년층 관

련 서비스 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서관이 114개관(92.7%),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서관이 106개관(86.2%)로 나타났다.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 제43조가 정한 도서관의 책무를 보면 첫째,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과 관련한 세번째 문제점은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공간 및 시설부족을 들 수 있다. 도서관의 공간운영변화를 보면, 최근에 확대·개편된 공간으로 디지털/멀티미디어정보 공간이 전체 도서관중 28개관(16.8%)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한 매체의 다양화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항목이다. 향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공간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시장, 음악감상실, 영화감상실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한 희망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도서관의 62.9%인 105개 도서관에서 문화공간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26개 도서관(15.6%)은 휴게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미비로 인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정보제공역할만을 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디지털정보의 증가와 그에 따른 서비스 변화의 필요성 증가 그리고 이용자들의 도서관 정보 및 공간 활용 방식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포메이션 코먼스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단순히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능 이외에 교육과 문화·휴식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새로운 정보환경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평등권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입지조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조사 결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 응답도서관의 30%에 가까웠다. 우선 대지상황상 이러한 지역에 도서관이 입지할 경우 건축법상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50~80%선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도서관 건축에 있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도서관이 위치할 경우 도서관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은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

는 업무활동지역으로서 주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접근하기 편리한 중심지대, 찾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수단의 주교통로 및 대로의 교차로, 주민들의 일상생활 동선의 방향,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가깝거나 부지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최적 위치라 할 수 있다. 이들 조건과 비교하면 이들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경우에 따라 최적조건 중 네번째 조건만을 간신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의 입지선정은 대지상황, 지역여건 및 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해 도서관이 설립된다면 도서관은 이용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이용률 저하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5. 결 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현황을 조사하면서 연구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공간운영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도서관의 목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간이 전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한 전면적, 정책적, 실무적 차원에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 현황파악을 위해 연구팀이 조사한 내용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공간운영현황과 개별도서관별·공간구성별 운영현황 및 공간구성변화 그리고 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 등이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현황, 변화, 문제점 및 향후 효율적 공간운영에 대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

도서관의 건물면적을 1,000㎡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1,000㎡~7,000㎡ 미만에서 다양하게 분포된 것과 달리 건축면적의 경우는 전체 응답도서관의 63.4%인 106개 도서관이 2,000㎡ 미만 규모의 건물면적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에 대한 이러한 조사결과는 도서관의 소재하는 대지의 도시계획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관의 건물면적은 봉사대상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정기준이 있는 반면 도서관의 대지면적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도서관은 소재하고 있는 대지의 조건에 따른 용적률과 법적기준에서 정한 건물면적을 고려하여 대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건물면적과 달리 도서관의 대지면적이 고르게 분포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 다른 해석은 장래 도서관 건물의 확장가능성을 생각한 부지확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증대에 따른 도서관건물의 확장공간을 감안하여 현재의 건물면적 법적기준을 능가하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의 입지조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도서관이 70개 기관으로 전체의 5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녹지지역(21개 도서관, 17.1%), 관리지역(6개 도서관, 4.9%), 농림지역(6개 도서관, 4.9%), 자연환경보전지역(2개 도서관,

1.6%) 등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도 35개관으로 28.5%에 달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위치는 이용자의 효과적인 정보접근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접근의 용이성이 공공도서관의 최적의 입지조건이라고 본다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소로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동선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의 주거지역은 최상의 위치가 될 수 있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에 도서관이 위치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도서관의 위치를 예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접근의 용이성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넓은 공간의 도서관을 건축할 수 있다는 용지 확보 용이성 및 비용절감, 그리고 넓은 공간 확보로 인한 문화, 여가 등을 위한 도서관공간의 효율적구성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도서관의 층 구성은 3개 층 이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3층 규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가장 중앙 층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지상 1층과 2층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이용자서비스공간으로 전적으로 할애하고 있었으며, 그 외 사무공간과 수장 공간은 지하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다. 공공도서관이란 다른 관종과 달리 이용자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1층에 배치하고, 관내에 들어와서도 2층이나 지하를 오르내리지 않고 가능한 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건물은 가능하면 단층이나 2층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라도 2층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위 조사결과는 고비용으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공간 확보 문제를 고려하여 도서관에서 교육지책으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행히 이용자서비스공간을 주로 1층이나 2층에 배치함으로써 이용자가 한 층에서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층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들의 각 공간별 활용현황은 이용자서비스공간이 49.8%로 전체 건물면적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반면 수장 공간은 건물면적 대비 9.3%, 사무공간은 7.9%, 공용공간은 24.2% 그리고 기타공간은 9.4%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공간운영의 현실이 반영된 기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장서공간보다 이용자서비스공간이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 공간의 잠식으로 인해 사무공간을 비롯한 기타 공간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일반열람실 확보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여, 현재 처럼 공공도서관의 공간운영을 방치할 경우 장서 공간 및 사무공간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 따라서 전면적·정책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20세기 말 디지털도서관의 출현을 계기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물리적 도서관 소멸론'은 너무 성급하거나 과장된 예측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장소로서의 도서관' 혹은 '건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

보기술이 도서관을 바꾼 것이 아니라 도서관 속으로 들어왔다'(McDonald 2007)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다. 새로운 정보환경의 변화는 내부적으로는 도서관의 기능 재배치를, 외

부적으로는 이용자 정보요구의 다원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따라서 21세기의 도서관 건축은 이러한 변화 경향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철완. 2005.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149-167.
- 김정희. 2007.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 도서관운동연구회 편저. 2000. 『공공도서관 운영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서혜란, 이상호, 김선애. 2007. 『도서관 공간운영 실태조사 및 표준모델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은경원. 2007. 『공공도서관의 복합화경향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도서관의 다원적 기능과 공간의 적응』.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 이상호, 공순구, 박고현. 1999. 공공도서관의 내관자 관내 행위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21: 62-68.
- 이인영. 2004. 『공공도서관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정미·곽철완. 2005. 어린이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어린이의 연령 단계별 공간이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177-198.
- 차미경. 2006. 유비쿼터스 시대 도서관 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325-343.
- 한국도서관협회. 1991. 『공공도서관 표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문헌정보학회. 1996. 『21세기 공공도서관 발전방향 및 모델개발연구』. 서울: 한국문헌정보학회.
- Gill, Philip. 2002.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IFLA/UNESCO 가이드라인』. 장혜란 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McDonald, Andrew. 2007. The Top Ten Qualities of Good Library Space. In *IFLA Library Building Guidelines: Developments & Reflections*, edited on behalf of IFLA by Karen Latimer and Hellen Niegaard. Munchen: K.G. Saur.
-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2005.

People Places: A Guide for Public Library Buildings in New South Wales.
Sydney: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Vaidhyathan, Siva. 2005. Risky gamble

with Google,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2(15): B10.

Venturi, Robert. 2004.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 임창복 역. 서울: 동녘.